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기업(企業)이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과 시설 투자를 한 사주(社主)가 사원(社員)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업체(業體)를 말한다.

기업 경영하기 좋은 조건은 물류의 이동인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을 위한 노동 인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의 확보가 쉬워야 하며, 노동자가 주인 정신으로 일하고 노사 분규를 일으키지 않는 인적 조건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 조건이 불편하여 국제화 시대에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회사를 옮기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좋은 기업 조건을 제시하

며 선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부패한 정치권에 정경유착으로 대기업을 병들게 하여 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내 딸이 고와야 좋은 사위를 맞이한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의 우량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 하며 우리나라에 투자해 기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선진국기술이 우리나라에 전수되는 것이다.

시장 상가에서 팔고 있는 공산품 중 중국산이 많고 동남아 후진국에서 만든 것이 많은데, 이는 저임금

의 노동 인력이 있고 노사 분규가 없는 나라로 선진국 기업이 옮겨가서 만든 제품이다. 노사 분규는 기업가가 꺼리는 악조건이다.

회사의 경기는 좋지 못하데 노인을 올려 달라고 연례행사처럼 일으키는 노사 분규는 기업가가 등을 돌리는 첫 번째 악조건이다.

노사 분규는 봉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봉급 인상이 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경영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해주어야 하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는 기업가가 꺼리는 악조건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바람이 기업에 전파되어 노동자가 큰 목소리를 내

고 기업주가 움츠러드는 기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노사가 다 함께 '우리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앞서가자,'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사주인 중소기업가는 월급날만 되면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을 드나들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월급을 받고 월급날을 기다리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장만에 벤처기업을 만들고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만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와 국익에 봉사하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증원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정부의 행정관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이고 작은 정부 운영의 틀을 짜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선진화된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데, 2020년도 말 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제경쟁을 하면서 자유무역으로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자유무역 협정)에 8개국이 협정되어 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이 관세 장벽 없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시장을 개방하고 좋은 제품을 싸값으로 팔아 상권을 장악하려는 경쟁 속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앞서가려면 신기술개발로 선진화 제품이 나와야 하고 기업 경영하기 좋은 여건 개선으로 생산 단가를 줄여야 한다.

국제 경쟁 시대에 후진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앞서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후진 되고 생산비가 많이 든 제품을 만들게 되면 국제 경쟁 시대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세금은 80% 이상이 기업에서 내고 있으며 국민복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 세수가 확보되고 국민복지 사업도 할 수 있다.

부정부패에 얼룩진 정치권이 기업에 손을 벌려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국내기업이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깨끗한 정치를 하여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업이 잘되어 많은 이익을 내고 경쟁력에서 앞서가도록 노·사·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가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윤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얇아진 얼음판 확인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한파 이후 기온차가 커지면서 저수지·하천 등의 결빙상태가 좋지 못해 얼음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기온이 영하 5도보다 높아지면 얼음판 붕괴로 인한 익사자가 강추위 때보다 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로 '따뜻한 겨울'이 현실이 된 만큼 얼음 낚시와 같은 겨울철 레저를 즐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수지와 강에 얼었던 얼음이 약해져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얼음 위에서 빙판놀이, 낚시 등을 자제하고, 꼭 얼음판 진입 시 두께가 최소 15cm 이상이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10cm 이상이어도 얼음판이 쉽게 깨질 수 있어 위험하다. 얼음 밑으로 빠지면 구조 골든타

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얼음판은 둔치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는 더욱 쉽게 깨질 수 있다.

공공 언 것처럼 보이는 얼음도 군데군데 녹아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

한번 깨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구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불리

얼음에 들어가 구조하면 안 되고, 긴 막대기나 플라스틱 통에 끈을 매달아 구조자에게 던지는 등 구조자도 구를 이용해야 한다.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오려 하지 말고, 얼음 위에 팔을 올려놓은 뒤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기후변화가 얼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통해 인명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경수/화순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